

오늘날 우리 역사학계의 책세상

박광용 |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오늘날 우리의 책을 보면, 메를로 폰티의 “역사는 머리로 걷지도 않으며, 다리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말이 꽤 절실하게 다가온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혼돈의 시대라서 그런지, 머리로 걷고 다리로 생각하는 불행한 저자와 이름과 실체가 전혀 맞지 않는 사이비들이 한데 섞여 있는 듯하다. 개발독재에 기댄 권위주의 정권도 끝장나고 사회공동체가 상당히 민주화됐는데도, 학계·출판계에는 아직 그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인 듯하다.

예컨대 아직도 자기 저서를 직접 쓰지 않고, 제자들의 리포트와 아이디어를 모아서 낸다고 한다. 더욱이 그런 책이 그 학과·학맥의 구성원 수·권위라는 후광을 받아 추천도서 등으로 선정되기도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른바 선전전의 힘을 빌려 ‘내 깃발 꽂기’, ‘내 것 만들기’ 경쟁이다. 이런 현상이 지적 재산권 문제인 표절시비 자체를 터부시하는 풍토를 조성한 근본이라는 사실은 접어두자. 정통학계는 학계의 검증 없이 대중서적을 내 자기 학설을 인정받고 싶어한다고 비판하고, 역으로 정통학계만 책을 내면 다냐고 상대편을 공격하는 식의 정치적 기고문들까지 언론 지면을 장식하니 정말 문제다.

이런 세상에서는 제 정신을 가진 역사 전공자가 사료더미 속에서 머리로 생각하고, 역사 현장을 수십번 걸어 확인하고 나서, 이 내용을 대중용으로 풀어썼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창조적 저술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체로 사료 해석이나 현장 체험, 둘 중의 하나에서 문제가 생긴다. 하물며 아마추어적 저술 가운데는 근거를 밝히지 않고 베끼기, 아이디어 도용하기, 외국 대중사가의 역사관을 빌려 우리 역사 재해석하기 등의 수준에다 흥미유발 차원의 내용을 덧붙여 쓴 경우가 있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럼에도, 최근 ‘머리로 생각하고 다리로 걷는’ 역사가가 몇 권씩 눈에 띄는데, 이는 독자들에게 큰 행운이고, 역사 매니아층의 수준이 크게 상승했음을 말해 준다. 미하일 바흐친은 “말에는 시작과 끝이 없으며, 대화의 맥락은 무궁하다...그러므로 오랜 옛날에 있었던 대화의 의미도 언제나 나중의 대화에서 늘 재생된다”고 했다. 글을 멋지게 쓰고, 입담이 좋다고 해서 아무나 이런 찬사를 받을 수는 없다. 본래 의미의 역사적 해석 능력을 갖춘 사람, 곧 오늘의 생활과 직결되도록 새롭고 종합적인 이해력을 갖춘 사람에게 해당되는 찬사다.

특히 역사 관련서적은 저자가 직접 사료를 넓게 섭렵해야 독창적 저술이 가능하므로, 한두권의 노작이 더욱 중요하다. 10년 이상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결과 탄생하는 한 두권의 책은, 저자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미 내용 속에 저자 자신, 그리고 독자를 다음 단계로 이끄는 요소를 깊숙이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책들이 불교의 권위적·절대적 보편성, 성리학의 인간적·정통적 보편성, 실험과학의 객관적·합리적 보편성, 포스트모더니즘의 횡단적 보편성 등 중에서 한가지 바탕만을 깔고 출발했다 해도, 근본적으로 ‘머리로 생각하고 다리로 걷는’ 한,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창조적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니지만, 변하는 것 중에는 ‘진보’하는 것이 많게 마련이다.

통권 제263호 | 1999년 8월 20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정기구독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덕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